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www.naks.org

Washington, D.C. Established since 1980

4535 King Edward Ct., Annandale, VA / 703.628.4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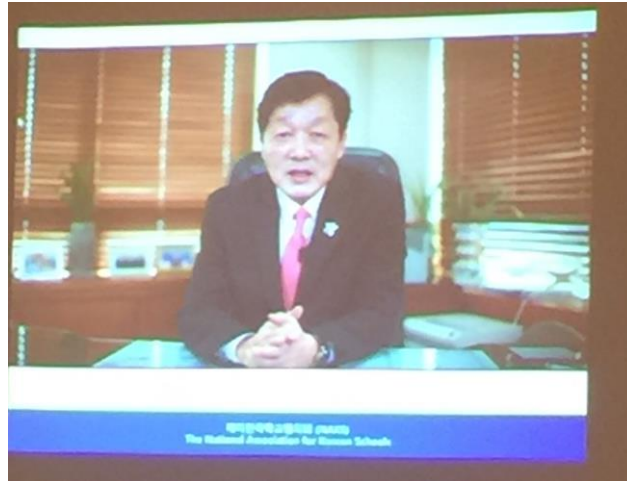
2018 년 제 36 회 학술대회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 을 위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집행부 및 지역협의회 회장단 연석회의 개최

- 일시: 2018년 1월 5일 - 7일 (금-일)
- 장소: Renaissance Schaumburg Hotel and Convention Center
- 참석자: 이승민 제 18대 총회장 및 집행부, 14개 지역협의회 회장단, 이사회 임원, 고은자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 이사장, 신현주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부이사장, 윤현주 중서부 협의회 주최 지역회장
- 손님: 이종국 주시카고 총영사, 신문규 주미대사관 교육관, 박준성 시카고 한국교육원장, 김채영 재외동포재단 주재관, 하유경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 과장, 이종헌 교육부 재외동포교육 담당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주최하는 제 36 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에서 개최된다.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큰 주제 아래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 있는 한국어 관련 기관들과도 연계하여 우리 선생님들이 한국어 교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학술대회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를 준비 하기 위해 이승민 총회장을 비롯 14 개 지역협의회 회장단과 집행부들이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2018 년 1 월 5 일 - 7 일에 Renaissance Schaumburg Convention Center 에 모여서 연석회의를 열었다.



첫날인 1 월 5 일 개회식에는 이종국 주시카고총영사, 신문규 주미대사관 교육관, 박준성 시카고 한국교육원장, 김채영 재외동포재단 주재관, 하유경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 과장, 이종현 교육부 재외동포교육 담당이 참석하였고, 특히 전시카고 한국교육원장이었던 하유경 과장이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 과장으로 참석하게되어 더욱 반가운 자리를 만들었다. 이종국 주시카고 총영사는 미국에서의 한국어, 한국문화를 정착하게 하는데에는 쉽지 않은 일들도 많지만, 동포사회와 모국을 이어주는 대표적인 차세대 교육기관인 한국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선생님들 덕분에 그 폭이 좁혀지게 되고 자녀들의 뿌리교육에도 힘써줌에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를 해주셨다. 신문규 주미대사관 교육관계서도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올해도 더욱 전진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의 한국어교육, 문화역사교육을 맡고 있는 우리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한국정부를 잘 연결 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교사들의 아낌없는 노고에 대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영상 격려사가 이어졌다.

2018 년 들어 처음 함께 만나는 자리인 만큼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시작된 이 회의에서 연석회의를 주최한 이승민 총회장은 “ 우리 NAKS 가 36 년간 열심히 노력한만큼 올해도 크나큰 성공적인 행사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또한 이행사가 우리만의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부기관과의 협력속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할수 있어야 더 발전적인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면서 “지역협의회장들은 관망 차원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사업들을 의논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고 하셨다. 올해는 학술대회의 주제가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인 만큼 한국어 교육의 아끼지 않는 열정에 전문성을 더한 한국어 교육을 하는 우리 한국학교교사들의 더 많은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노라 하였다. 이에 학술대회에 국내외의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열정과 전문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한국어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날에는 SAT Subject Test Korean 한국어 모의고사를 위해 이광호 전문위원장을 비롯 강주언, 서승희, 손민호 출제위원이 모여 이를 위해 준비작업을 하였고, 제 1 회 한국어 모의고사 출제위원이었던 이광호 자문위원, 명계웅 중서부자문이사, 박규영 교수가 제 21 회 출제위원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한자리를 맞았다.



특히 이날에는 지난 2017 년 12 월에 실시하였던 제 1 회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거북상을 받은 미시간주의 지역회장(김선미 미시간 지역협의회)께 거북선을 증정하였다.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대회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지고 지순한 애국애족의 정신과 혼이 살아 숨쉬는 고매한 성품을 기리기위해 이순신미주교육본부와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첫번째 행사였다. 이에 각 한국학교에서 원고신청을 한후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통해 19 명의 학생이 수상을 하게된다. 이 거북선은 3 년에 걸쳐 공인 수작업에 위해 제작된것으로 매 해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대회에서 이긴 최우수상 지역협의회에게 수상된다.

계속 되어진 연속회의에서는 올해의 사업계획안, 이사회보고, 집행부 보고등 사업논의를 밤이 늦은줄 모르고 열심히 토론을 하였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준비 하여 21 년만에 다시 돌아온 시카고에서 성공적인 7 월행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